

|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

새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윤곽 나와

이세종 전문위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간사)은 4. 3.(화) 07:30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 두 번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위해 모였다.



대표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사진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했다. 자리를 정돈한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첫 인사말은 이번 대표자회의를 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맡았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는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많다”며, “어렵게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또 “합리적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앞에 두고 좀 더 진전을 이뤄가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성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 없이는 청년실업도, 출산율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격차 해소를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짚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고, 조선이나 자동차 구조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일정상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기구 개편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50일 시한을 두고 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손경식 회장은 “아직까지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데, 노사정 간 꾸준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입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첨예한 논의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노사가 공감하는 주제를 우선 선정해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조직 내부의 사정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부정적인 경험이 많지만,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첫째, 무리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협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하고, 둘째, 노사 중심성을 분명히 하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참여 주체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셋째, 초기업단위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산업별 위원회,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현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장관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서 시급한 노동 현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국 단위 조직과 별도로 이해대변이 취약한 비조직 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자 국민의 요구이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사람씩 인사말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찬을 겸한 이날 회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09:40 회의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노사정 대표들은 회의 시작 때의 걱정과는 달리 명칭과 참여주체 확대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윤곽에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은 의견 접근된 결과(아래 표 참조)를 기자단에 브리핑했다. 우선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참여주체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제별 위원회로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연구위원회도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견접근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민주노총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배려라고 문성현 위원장이 설명했다.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

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 ▲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하였다.
- ▲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 데 의견접근이 있었다.
-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있었다.
- ▲ ‘(가칭)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이 있었다.
- ▲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한다.
- ▲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 안전위원회, ▲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운영한다.

* 노동기본권 관련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셋째, 노동계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위원회를 제안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3일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단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쟁점이 됐던 의결권은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된 것인가?

위원장 참여주체 확대는 가능하면 의결권을 기본으로 한 접근이다. 다만 대표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등 각 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 되는지

위원장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모여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이해해 달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 하도급 문제, 격차 문제, 연대임금 문제, 금속노조가 제기한 하후상박 임금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의견접근이라는 것이 합의를 뜻하는 것인가?

위원장 내용적으로는 합의지만, 노동계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다. 그것을 감안한 것이다.

국회 통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위원장 시간표를 정해놓으면 좋지만 대화주체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국회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 4월에 하면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노동계가 참여주체 확대에 대해 추천권을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상임위원 구체적 선출 방식 그리고 의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추후 더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 노사정 대화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위원장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것은 1차적으로 노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노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노사의 의지와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언제 처음으로 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지. 연내에는 가능한지

위원장 빠른 시일 내 하겠다. 연내 안 되면... 제 임기가 내년 8월이면 끝난다.



노동 3권 보장 문제도 있지 않았나. 논의를 따로 미룬 이유가 있는 건지

상임위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견이 없었다. 단지 지금 당장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박자 정도 늦춰서 꾸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노동 기본권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고, 다시 말해서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갈등이 곧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 체제 운영에 역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한편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 기본권의 보장이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안도 있었다.

전경련은 참여하지 않는 건가?

위원장 공식적 참여주체가 아니다.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국GM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나?

상임위원 GM이나 금호타이어 문제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이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특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있었다.

분위기는 어땠나?

위원장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적극적으로 대표자들이 논의에 임해 주었다.

두 번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음 회의는 참여주체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자는 1차 회의 때의 합의에 따라 한국노총에서 개최하기로 했다.